



날짜: 2019년 10월 10일

수신: 자문위원님

동남아남부, 동남아북부, 동남아서부, 서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협의회

제목: 19기 자문위원 위촉 축하 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자문위원님 여러분,

향후 2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번영의 기반 조성을 향한 통일공공외교 활동의 주역으로 위촉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지하시듯 제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9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내외 간부위원(부의장, 운영위원, 협의회장, 지회장, 간사, 상임위원)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갖고 2년 동안의 임기에 공식 돌입하였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우리의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평통이 내디뎠은 발걸음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역사 그 자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언급대로 우리에게 19기 임기 동안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새 역사를 써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해외 평통 위원들의 왕성하고 체계적이며 응골찬 통일공공외교 활동이 한반도의 화합과 통일을 앞당겼다”는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 지역회의는 18기를 마무리하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양주에 울려 퍼진 100년 전 독립운동의 함성: Oceania resonating with roars of Korean independence 100 years ago>의 책자를 펴내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펼친 공공외교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책자 준비 과정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위원들이 100년 전에도 존재했다면 우리의 독립을 훨씬 앞당겼을 것이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부의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우리의 고국 정부도 공공통일외교역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해외평통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에 방점을 두면서 외교적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의 역할과, 소속 위원 개개인의 책임은
한층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국의 이러한 기대감에 실질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향후 2 년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604 명의 자문위원님들 모두 각 협의회장님과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주어진
책임 구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 19 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해외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을 거듭 축하 드리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고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땀 흘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문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숙진
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